

한솔제지, 환경도 살리고 이웃도 돕는 친환경 재생용지 ‘2012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수상

한솔제지가 지난 6월 4일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과 ‘폐지수집 독거노인 희망 쌀 지원’ 협약식을 맺고 쌀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친환경 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2012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지식경제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정리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한솔제지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면 환경도 살리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습니다” 한솔제지 ‘1% 나눔 운동’의 슬로건이다. ‘1% 나눔 운동’이란 친환경 재생용지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한솔제지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제지 기업으로 친환경 제품의 필요성을 인식, 2007년 업계 최초로 친환경 재생용지를 출시했으며, 2011년 재생인쇄용지인 블루시리즈를 완성했다. 2012년에는 재생필프 함유율을 50% 이상으로 높인 하이브리드 코트50도 출시했다.

한솔제지는 친환경 재생용지를 개발하고 생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했으며, 자연스럽게 친환경 재생용지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취지의 ‘1% 나눔’ 활동도 기획했다. 한솔제지는 그 첫걸음으로 지난 6월 4일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과 ‘폐지수집 독거노인 희망 쌀 지원’ 협약식을 맺고 쌀 및 생필품을 지원했다. 희망 쌀 지원은 매월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1%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한톨나눔축제’에 친환경 재생용지로 제작한 드림노트 6만권도 지원했다. ‘한톨나눔축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손으로 지구촌의 어려운 아동들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최대 청소년 자원

봉사축제다. 1991년 한톨자선달리기로 시작한 한톨나눔축제는 매년 3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6일에는 상암월드컵경기장 평화광장에서 ‘서울-한톨나눔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지구촌의 어려운 아동들이 생활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선물세트를 만들면서 나눔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날 행사에 한솔제지는 축제 참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생용지 사용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이벤트도 실시했다.

한솔제지는 현재 제지회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재생용지 개발 및 사용권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제품상 부문에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은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정부포상이다.

한솔제지는 앞으로도 나눔의 대상 및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며 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인쇄용지뿐만 아니라, 고급 인쇄용지, 팬시지, 기능지(감열지)까지 재생필프를 배합한 재생용지로 생산하여 한솔제지 제품의 친환경성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